

01 새로운 시대의 건축사시험의 변화

Changes in the Architect Registration Examination in the new era

글. 김종무 Kim, Jongmoo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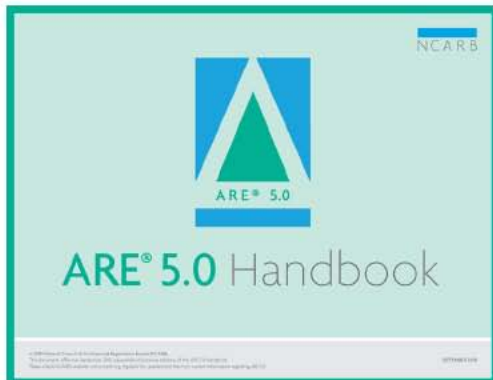
6년 전 그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시험장에 일찍 가서 장소에 적응하기 위해 무거운 제도판과 점심 도시락을 들고 잠실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던 그 기억.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건축사분들도 시험에 관해 나름의 추억이 다 있을 거라고 판단된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 해 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건축사로서의 자질 판단이 몇 시간의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을 것이라 생각된다. 얼마 전 2018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예비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지난해보다 1,073명이 늘어난 총 7,122명이 응시하여 약 75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년도와 비슷한 약 10% 수준의 합격률이다. 건축사 시험을 논할 때 항상 나오는 화두가 공급과잉의 건축사 수를 이야기한다. 이는 예전 건축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배출인원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건축사시험이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줄어드는 설계건수가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건축사의 수는 줄어들지 않기에 이러한 위기의식은 당연할지 모르나 수요와 공급의 조절장치로서 건축사시험을 한정 짓는 것은 건축사 스스로가 사회적 위치와 책임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보다 이제는 건축사의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보다 앞서서 나갈 때이다.

조금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건축법 제1장 제1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법은 건축물의 대기·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건축은 개인 또는 단체의 사유재산일지라도 일정 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건축물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적 영역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 교집합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건축사의 직업윤리 또는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모 현상설계 관련한 내용이 SNS와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미 어느 정도 공론화되어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심사과정 및 당선된 설계안에 대한 평가가 주된 이슈라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직업윤리와 건축전문가로서의 소양과도 관계가 깊다. 이는 특정 다수의 이익과 불특정 다수의 이익 사이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다. 이러한 문제를 적절치 못한 시스템 탓이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양적 생산에 몰두한 교육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집중된 평가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지금의 건축사자격제도

로는 '공공복리에 이바지'하며 직업윤리를 갖춘 건축사 배출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현재 한국의 건축사 자격시험은 예전 일본 건축사시험의 형태를 답습하여 출발한 이후 UIA기준과 시장개방에 맞추어 응시자격과 자격시험이 변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큰 틀에서 바라보면 일본과 미국의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건축사 시험제도를 살펴보면, 건축을 통한 시민의 건강, 안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 아래 NAAB(미국건축학교육인증원), NCARB(미국건축사등록원), AIA(미국건축사협회)의 3개 단체가 미국 건축사자격과 관련한 사항들을 주관하고 있다. NAAB을 통해 인증된 대학이나 대학원과정 졸업 후 실무수련과정(IDP)을 2~3년 거쳐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각 단체에서 주관하는 내용이나 평가에서는 차이가 있다. 대학의 인증 심사를 하는 NAAB는 NCARB, AIA 뿐만 아니라 학교의 권익을 대변하는 건축학교육협의회(ACSA)와 공동으로 구성하고 주관함으로써 보편적인 교육과 실무를 위한 교육의 적절한 균형을 유도한다. NCARB는 실무수련과정 동안 건축사로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Pre-Design, Design, Project Management의 세밀한 형태로 분류하여 실무역량별 일정 시간 이상 수련할 것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NCARB는 변화하는 건축 환경에 보다 앞장서서 시험 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기존의 ARE 4.0버전의 시험을 2018년 6월 20일부로 폐지하고 새롭게 ARE 5.0버전으로 변화시켰으며 기존의 응시자가 혼란스럽지 않게 유예기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개선된 시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미국의 건축사 자격취득 과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이 시험제도라 볼 수 있는데, 우리와 달리 시험 과목은 프로그래밍, 기본설계, 배치계획과 설계, 구조시스템, 설비시스템, 시공, 마지막으로 실시도면과 건축사 실무 등의 일곱 과목으로 구성 된다. 이는

학교를 졸업한지 여러 해 지났더라도 실무수련 후 설계 일부 과목들만 응시하게 되어 있는 우리의 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시험의 방법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하루에 집중되는 한국과는 달리 1개월에 한 과목씩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전산화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는 시험 준비를 위한 피로도를 분산시키고,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과 능력의 평가를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참조 : 이준석, 미국의 건축사제도와 교육>



미국건축사시험(ARE 5.0) 핸드북

출처 : www.ncarb.org

영국의 건축사 자격제도는 좀 더 세분하여 나누어진다. RIBA(영국왕립건축사협회)가 인증한 학교에서 3년 교육(학부과정)과 1년 실무수련, 다시 2년 교육(대학원과정)과 1년 실무수련을 마치면 RIBA part 3에 응시하여 합격 후 건축사를 취득하게 된다. 이는 교육(RIBA part 1)-실무(Stage 1)-교육(RIBA part 2)-실무(Stage 2)-최종평가(RIBA part 3)로 이어지는 형태로 교육과 실무 수련이 밀접하게 병행된다. RIBA part 1의 학부과정 3년은 다른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한 보편적인 건축교육이라 할 수 있다. 건축설계를 중심으로 건축역사, 구조, 재료 및 시공기술 등 다양한 건축적 지식을 배우게 된다. RIBA part 2의 대학원 과정 2년은 종합적인 설계교육이 진행되며, 1년의 실무수련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교육을 심화 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건축공부와 복잡한 프로젝트를 다뤄볼 기회를 제공하며, 1년차에는 논문과 2년차에는 설계 작품을 제출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최종 관문인 RIBA part 3에서는 2년의 실무능력평가, 사례연구, 필기시험, 최종 구두시험을 보게 된다. 필기시험의 경우 오픈 북 형식으로 3일간 진행되어 밀도 있는 평가가 가능하며, 최종 구두시험이 가장 힘든 과정으로서 필기시험의 답에 대한 논리를 재확인 및 건축사로서의 윤리의식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필요한 현장경험, 계약관리, 설계관리 및 법적 책임에 대한 실무 경험을 요구한다. 이상의 RIBA Part 1, 2, 3의 자격을 획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RIBA의 공인 건축사' 자격을 최종적으로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영국의 건축사 자격제도의 핵심은 교육과 실무의 병행으로 각 Part 1, 2 이후에는 실무 경험을 쌓게 하며 마지막 최종 Part 3 과정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수행 능력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조 : 정재용, 영국의 건축사 자격과 등록에 대한 제도>



RIBA part 3, 설명회와 응시자를 매뉴얼

출처 : www.architecture.com

한국도 이제 건축학교육인증원과 건축사등록원에서 건축사자격을 위한 교육과정의 인증과 실무수련을 감독함으로써 미국이나 영국과 비슷한 형태의 교육·실무수련·최종자격시험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즉 어느 정도 시스템은 구축되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과 실무수련은 본 시험장으로 가기 위한 관문의 형태이며, 하루의 자격시험에 거의 모든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건축사 자격에 요구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직업윤리와 건축사의 철학 등의 소양은 하루의 소모적인 시험으로 모든 것을 평가 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 처럼 교육과 실무수련의 과정 속에 평가가 자연스럽게 분산되어야 하며, 본 시험도 하루에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여러 번 분산되어 교육과 실무수련 과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단계별로 분산된 평가는 집중된 피로도를 낮추고, 그들의 실무 과정을 원활히 이어가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므로 예비건축사들도 수용할 만한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 할 수 있다. 전산화된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새로운 시험방식과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시험의 난이도와 관련한 합격률 또한 여러 번의 단계로 평가가 분산됨으로 지금의 건축사 자격시험제도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합격률 및 건축사 수급에 관련하여 다른 분야를 살펴보자.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도부터 의과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정원을 증원·신설할 경우 새롭게 입학한 학생이 활동의사가 되는 10년 후인 2025년에는 의사공급의 과잉 현상이 발생하며, 한 번 신설된 의대나 증원된 정원은 폐쇄·감축하기 어려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 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007년 1.7명에서 2012년 2.1명으로 0.4명이 증가했지만, OECD 평균 3.2명보다 1.1명이 적은 것을 근거로 인력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는 사법고시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됨에 따라 비싼 학비를 지불해야하는 로스쿨에 진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제도로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 하고 있다. 로스쿨의 취지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을 하면, 모두 변호사가 되는 제도를 전제로 도입되었지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시험을 통한 제도로 정착되어지는 모습이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에 로스쿨이라는 학력제한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인위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기 원하는 대한의사협회나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개방했지만 값비싼 비용과 응시제한으로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든 법조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힘들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의 범주 안에서 한정하여 우리의 자격제도를 논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분야 자격제도의 이해를 통해 개선 방안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젊은 건축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 가능한 규모는 물론이고 경제성까지 검토가 가능한 인공지능 건축설계 서비스앱을 선보였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소위 규모검토용 ‘기획설계’는 이제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시대가 왔다. 이는 우리가 건축사 자격시험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 암기식 시험보다는 다방면의 평가가 가능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외국의 건축사 자격시험제도를 무조건 답습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이미 구축되어진 시스템을 활용하여 점진적인 개선만으로도 교육과 실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제 현업에 있는 건축사들도 이런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공론화하여 건축사자격제도가 변화하는 건축시장을 쫓아가기보다 앞장서서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김종무 건축사

김종무는 1978년 서울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에서 실무를 시작하여 건축사 취득 후 디자인총괄 소장으로 근무 중이며,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설계스튜디오 및 건축계획 강의를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국립경기장 국제현상설계에 당선하여 설계 및 감리를 수행중이며, 강원대학교 건강스포츠킴교육관 및 고수동굴 방문객 센터, 옥천 주택 등 다양한 규모의 실무적 경험과 생체모방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에 있다. 최근에는 한국건축가협회의 올해의 건축가 100인전 및 대학건축학회의 Young Architects' Design Session에 선정되어 출품했다.